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전능왕 오소서(찬34/새10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강현석 장로 2부/고석민 장로 3부/곽태일 장로 4부/조성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나(작곡 최덕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6:10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4:35-4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20) 새 애국가 부르기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2) 한숨과 염려는 기도가 아니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영혼이 은총 입어(찬495/새438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 하나님의 공의, 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내려놓을 지팡이

Staff to Put Dow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요즘 목회자들이 만나면, 코로나 이후 변해가는 교회의 생태계를 보면서 그 대처방안을 논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 익숙해진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현장으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저런 방법을 나누기에 바쁩니다. 대략 70%의 성도들이 현장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30%의 성도들은 정말로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본 교회의 예배채널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소위 '주일성수' 했다고 여기고 계속 등록교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예배를 닫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작된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화 되어가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찾는 아이러니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했듯이, 팬데믹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백일하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믿습니다. 예배 처소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나의 신앙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팬데믹 전에는 예배에 나오는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배에 나오지 않고 편의주의에 빠진 온라인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없습니다. 현장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붙들었던 것, 아니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이제 교회의 본질이 다시 우리의 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지금, 아직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30%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모세의 지팡이가 골리앗 같은 인생의 장벽이나 완고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 같이, 내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우리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팬데믹이 가르쳐 준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내 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놓으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팬데믹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지팡이, 팬데믹 때 깨달은 그 지팡이, 이번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섭시다.

Nowadays when pastors meet,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s countermeasures for changing church situations since the pandemic. We are busy discussing how to have congregation to come out to church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online worship. About 70% of the congregation has returned to in-person worship. Then, where are the 30% who have not returned? We are asking the question that has never been asked before. They are not in in-person worship. If they worshipped online and were connected to church in that way, do we consider them church members? If they worshipped online with a different church, do we consider that they have 'kept the Lord's Day' and continue their memberships with their own churches?

Due to state executive order during pandemic, we had to close doors to in-person worship. An alternative method, worshipping online, has since become accepted as the norm. Ironically, we are encountering this way as another method of living out our faith. As I have always claimed, pandemic is God's way of showing us where our faith is. I believe that when we were not able to attend worship in-person, God showed us the state of our faith clearly. If I were stressed over difficult church members before pandemic, now I am stressed over church members who fell into comfort of online worship and do not attend in-person.

Nature of our faith should not change with environment. It is clear that the nature of church does not change whether you worship in-person or online. Pandemic was the moment when we needed to hang onto that nature. It is this nature that helped us through the pandemic. I am worried for those 30% who have not returned to church and far from our grasp. The staff that Moses carried while tending sheep became "God's staff" when he stood in front of Pharaoh of Egypt, who seemed like Goliath. We must check on our own staff. When we hold on to the True nature that the pandemic taught us, the staff in your hand will become God's staff. Like when Moses let go of his staff it became a serpent, and when he held it again it became staff, let's not be swayed by the pandemic any longer. Let's live out our faith before God. I believe if we let go of our own staff, the staff that you have relied on all your life and during pandemic, we can hold God's staff in our hand. Let go. Hold onto God's staff and rise up.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20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새 애국가 부르기

(마 6:10)

1. 미국 국가(national anthem)를 직접 불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용하기



2. 일반적으로 나라(nation)는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고/ 이사야 2:4, 11:6-8)

3.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구절을 찾아 읽으시면서 왜 핵심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참고/ 마 4:17, 행 1:3)

4.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는 두 가지를 간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_____ (눅 17:20)

2) _____ (롬 14:17)

5.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한 주간도 넉넉히 솟아 오르는 _____으로 승리하십시오.

교육부-소망부 VBS

따스한 눈빛만으로도 소통, 충분합니다



소망부를 섬겨본 경험은 없었지만, VBS 아침 커피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스페셜니드 학생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성실히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4일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대소변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황선영 조장님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이 친구에게는 고통과 불편인 것을 보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의 섬김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날 때마다 소망부와 스페셜니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노경래 형제(예살, 청2)

베델에서 소망부 VBS가 열렸습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어 도움을 줘야 하는 아이들이지만 한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것이 VBS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툴지만 말씀을 암송하며, 그들만의 몸짓과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존귀

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 여름날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던 날들이 평생 지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윤귀연 권사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소망부 VBS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처음이고 서툴고 부족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점검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하나 된 마음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시간을 떠올려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천국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혹은 할머니랑 손을 잡고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나누고 초록색 티셔츠로 갈아입으니 그야말로 꽃이었습니다. 찬양, 율동, 성경 말씀 외우기, 만들기, 그리기, 색칠하기, 음악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은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눈빛과 몸짓, 표정으로 이야기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은 서로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까지 천천히 완성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있어 주신 소망부 TA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길에 기도합니다.

이승연 권사

주보에 소망부 VBS로 날씨가 공고되면서 본당 앞에 설치된 봉사자 신청 부스에서 박정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봉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그 앞을 지나치는 저를 멈추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학생은 39명이지만, 한 학생당 최소한 한 명의

선생님이 필요한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정보와 참여를 부탁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VBS인데,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준비모임으로 매일 말씀, 찬양, 크래프트 등을 입술과 마음으로 같이하며 반을 편성하여 담당하는 학생들의 자세한 소개와 그들을 2인 3각으로 돌볼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나약하고 할 수 없는 자들을 들어 가능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VBS가 시작되고 소망부 학생들을 교회 입구부터 하이파이브로 환영하며 허그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며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넓고 시원한 체육관에서 VBS 찬양팀과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는 "놀라운 창조물"의 목적과 소명이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음을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바이블 스토리를 인형과 미디어로 진행하시고 팔찌를 한알 한알 엮으며 복음의 말씀을 저절로 배우도록 Craft를 만들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실내 Field Hockey도 하고, 도전미 집사님의 신나는 Violin 연주와 학생들을 인도하여 소고와 북을 치며 같이 하나가 되는 흥이 나는 한마당 잔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망부 학생들의 세족식을 거행할 때는 모두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발을 씻기는 선생님들 앞에서 요동치며 불안정하던 학생들마저도 진지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불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존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지음 받은 자로 섬기고 섬김받는 장면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중에 한 학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려 지켜보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감사와 영광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VBS 4일째 날은 예배와 찬양 후에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받은 후 교회 셔틀버스를 타고



Santa Ana Zoo로 향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동물과 자연을 만끽하고 안전하게 교회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4명의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VBS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실천에 힘써주신 존경하는 봉사자, 선생님, TA,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감사하며, 열정으로 시작한 봉사였으나 오히려 소망부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심과 사랑을 심어 주는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차규양 장로

삼 년 만에 소망부의 VBS가 대면으로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기쁨, 감동 은혜 충만함 가운데 잘 마무리됨에 감사드립니다. 베델 소망부에 속한 지체들과 타 교회를 섬기거나 혹은 불신자인 장애를 가지신 여러 연령대의 39명의 참가자와 교회에서도 서로 초면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된 주님의 군사 같은 봉사자들이 함께 4일간 기도, 찬양, 율동으로 시작하여 스크립처 레이디, 바이블 스터디, 말씀, 음식 크래프트, 재밌는 운동시간 등의 스테이션들을 돌며 매 스테이션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며 하루하루 표정들이 밝게 변화되는 것을 목

격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말은 지체 한명 한명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듯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격려했을 때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목요일에 행해진 세족식 때 각각 맡은 지체들의 발을 씻으며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연상케 하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봉사하신 분, 특히 딸 넷을 데리고 봉사하신 집사님, 여러 부부 봉사자들, 베델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초, 중, 고, 대학생, 청년들, 교회에 나오신 지 한 달 남짓한 성도님, 여러 집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매일 꿀맛 같은 점심과 간식을 공급하신 부엌 봉사자들, 오랜 계획과 기도로 준비하신 소망부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카니발과 동물원으로 소풍과 모든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신 교회와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여러 성도님으로 인해 소망부 VBS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주님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김벌리 시 권사

소망부 VBS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목사님 말씀에 망설임 없이 등록하여 VBS 기간 동안 도움

을 주기보다는 우리 부부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장애 지체를 만나더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약간의 두려운 마음으로 참여한 VBS! 첫 시간부터 Zoomerang을 동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신 성령님께서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임재하시며 봉사자와 소망부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 주셨기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VBS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소망부 지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어린 학생들과 젊은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장로인 제가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은혜받고 배우고 우리 베델의 밝은 미래가 그려져 흐뭇했습니다. 함께 섬길 수 있어 기뻛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소망부 지체들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들보다 더 큰 장애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식사와 간식 맛있는 무화과 선물로 사랑으로 도움을 주신 숨은 봉사자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VBS를 위해 기도하며 기획한 전도사님과 각 그룹의 리더들 찬양팀 친구들 스태프들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홍승표 장로

신학강좌

함께 책임지는 것 배우기



'교회를 지키는 신학-도전하는 Critical Theory'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신학 강좌를 통해 성이론(동성에 포함)을 위시한 일련의 이른바 '비판이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는 허무맹랑한 이론 체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이론들의 기초가 Marxism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까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등 모든 비판이론이 맥을 같이 하는 실상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사이비 이론들은 점차 심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 구조를 틈타서 앞으로 더욱더 거세게,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확고 부동한 성경적 가치관을 견지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영덕 장로

한여름에 열린 이번 6차 신학 강좌는 '교회를 지키는 신학-도전하는 Critical Theory'란 주제를 다뤘습니다. 내게는 많이 생소한 '비판이론'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해 있는 비판 이론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는 비판 이론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거부가 아닌 그들의 질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가는 무리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것들은 100년 전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고민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속적 세계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도 체계적으로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비판 이론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로서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의 참된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잘 교육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박영미 집사

급변하는 사회 인식과 보편적인 윤리성의 기준이 흔들리는 지금,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쓰인 불변의 진리 성경 말씀이 더욱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전하는 Critical Theory'라는 제목 아래 세 분의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첫째, 성

경은 우리를 의로운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들에게 바이블은 'A Good Advice'가 아니라 'A Good News'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조영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종훈 교수님은 다민족, 다인종,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창조의 아름다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똑같이 초대된 자들로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개인의 화해를 주도하심같이 다른 민족에 대한 환대와 유대성(Solidarity)을 강화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정승원 교수님은 차별 금지법 등의 'Gender 이슈'로 인해 자녀들의 공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때, 만물 창조주의 절대성을 믿고 자연의 질서와 말씀의 진리 안에 깨어 있으면 세계관의 충돌과 비판 이론에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박혜성 집사

이번 신학 강좌를 통해 모호한 세상의 범주 안에서 영적 무력감에 빠져 세상적 가치관의 신앙생활을 해 온 것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 삶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비판이론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개인의 삶에 면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분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야기시키고 무책임한 비판을 초래하는 진리의 왜곡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확증편향의 심화로 갈등을 증폭시켜 공공의 악을 유발하는 맥락에서 비판이론의 오류와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학 강좌를 통해 거대한 구조의 공적인 영역에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의 터(Foundation) 위에 성경적 세계관의 의식화와 영적 역동성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도전을 받은 은혜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박현진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Beyond the Blue 연합 여름 수련회

Beyond The Blue(B+B)는 김한요 담임목사님께서 베델교회에 부임하신 이후, 2015년에 시작된 가정 회복 사역으로 2022년 봄 학기까지 수 많은 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7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 기수마다 총 13주 과정으로 사별(배우자 및 가족 포함), 이혼, 별거로 인해 가정이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슬픔을 넘어 회복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여름, 지금까지 가정 회복 사역(B+B)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회복의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1회 Beyond the Blue 연합 여름 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갈릴리 수양관에 올라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30편 11절)

- ▶ 대상: 지난 7년 동안 가정 회복사역(B+B)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
- ▶ 기간: 8월 5일(금)~8월 6일(토)
- ▶ 일시: 8월 5일(금) 오후 4시 교회 카페 앞에서 출발
8월 6일(토) 오후 2시 교회 도착
- ▶ 장소: 갈릴리 수양관
- ▶ 참가비: \$20
- ▶ 준비물: 개인 슬리핑백, 세면도구, 모자, 멀미약(멀미가 있으신 분들), 선크림, 겹옷 잠바(산책용)
- ▶ 문의: 정우영 장로 (949)943-7320, 이란해 전도사 (949)422-8828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8/7: ①부-권순렬 ②부-김건수 ③부-김교식 ④부-강수연
	8/14: ①부-김귀성 ②부-김근수 ③부-김도석 ④부-박제인
	8/21: ①부-김동건 ②부-김동수 ③부-김동진 ④부-박찬미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8월) | 8/6: 석승진 8/13: 백권기 8/20: 변영택 8/27: 성주영

강단꽃(7,8월) | 7/31: 이 청, 김지원 8/7: 최호경 8/14: 김창남, 안예진, 최하자 8/21: 양준서, 윤주원, 최하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장미순(한의학), 간호사-홍정이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슬기로운 예배 방역 지침** 이미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산 됨에 따라 COVID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와 격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 중에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회 목목탕 THINK 목회세미나** 큐티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자 목회세미나가 열립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하게 되는 이번 집회에 특별히 셀목자님들과 큐티목상에 관심있으신 성도님들은 참여하시어 말씀 목상의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접수는 1일(월) 오후 1시 부터 본당 앞에서 시작합니다.

◆ **수요 예배 안내** 8월 10일(수)부터 담임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비유들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수요일(3일)은 목회자 세미나로 수요예배를 대체합니다.

◆ **목요특별기획: 예배 있'수요'**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본격적인 수요 예배 맛보기 [예배 있'수요']가 교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성도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현장 예배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주에 걸쳐 베델 수요예배를 이끄실 강사 목사님과 말씀을 소개하며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아침영상 여름 이벤트**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엮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세분 선정, 큐티책과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주제/모집기간: 여름 풍경, 7월 24일(주일)-8월 6일(토)
방법: 4K화질의 원본 파일 사진(가로로 촬영), 촬영 장소를 함께 적어주세요.
원본 파일 보낼 곳/문의: hongsikim@bkc.org,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성경적 성교육 Purity 프로그램** 우리 자녀들은 비성경적인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짜여진 Purity 프로그램을 통해 베델의 자녀들이 말씀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을 배우는 시간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등록 기간: 7월 17일(주일)-7월 31일(주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상: Purity Kids(4-5학년), Purity Teens(6-8학년), Purity Young Adult(9-11학년)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가정회복사역 Beyond the Blue 제1회 연합 여름 수련회** B+B 사역에 내려 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수련회를 갖습니다. (7면 참조)
일시/장소/회비: 8월 5일(금)-8월 6일(토), 갈릴리 수영장, \$20
문의: 정우영 장로 (949)943-7320, 이란예 전도사 (949)422-8828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챌린지** 교회학교에서 7월-8월 두달간 큐티인 섬머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두달간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시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적으로 큐티인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큐티인 교재는 실내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8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8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와 TA), K-1(3부 TA), 초등부 (2,3부 교사와 TA) 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한어 중고등부(CIM) 여름 수련회** 한어권 중고등부 자녀들이 2박 3일간 'Rese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회비: 8월 11일(목)-8월 13일(토), 갈릴리 수영장, \$150(2명 이상 자녀 \$130)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C2C 청소년 합창댄스 워크샵** 다양한 워십 중의 하나인 합창으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8월 19일(금)과 8월 26일(금) 오후 4시-7시
대상: 6-12학년 베델 교인 (2022-2023학년)
등록/등록기간: 베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7월 24일(주일)-8월 14일(주일)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기도해 주세요**
태국 단기 선교가 8월 1일(월)-10일(수)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정우영 장로, 박순임 권사의 아들 정상목 형제와 박신아 자매의 결혼식이 7월 30일(토)에 있었습니다.
- 하현정, 하수지 집사 가정에 딸 Amelia가 7월 26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박귀남 사모님(박길상 장로의 모친, 박명원 권사의 시모)께서 7월 27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영장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영장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inging the New National Anthem

(Matthew 6:10)

1. Have you ever sung the National Anthem of USA?

Apply to Life



2. Generally, how is a nation created? How is God's Nation (Kingdom) different from ordinary nations?
(Ref: Isa 2:4, 11:6-8)

3. The main point of the Gospel is 'God's Kingdom'. Read the referenced passages and explain why it is the main point. (Ref: Matt 4:17, Acts 1:3)

4. 'Your kingdom come' in Lord's Prayer is a prayer that asks for two things. What are they?

1) _____ (Luke 17:20)

2) _____ (Rom 14:17)

5. What is the phenomenon that will stand out when God's Kingdom comes? Pray for this with all your heart, and let's have a victorious week filled with _____.